

#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

2022. 9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

## 목 차

- 1 ..... UN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(BBN) 논의 또다시 합의 도출 실패
- 2 ..... 미 수산청, 메인 주 참고래 보호법 승소
- 3.. 영국 항구 파업과 중국의 황금 주간이 세계 해상 운송 방해 전망
- 4 ..... 러시아, 무역 현실 직면하며 수산 전략 재구상
- 5 ..... COFI에서 전재에 관한 자발적 지침 승인

## □ 환경단체, 국가들 UN 해양 컨퍼런스에서 보여준 약속 이행 촉구

- 뉴욕 UN본부에서 진행된 2주간의 추가 협상에도 불구하고, 공해 생물다양성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또다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
  - 뉴욕에서의 협상은 협약안의 주요 4가지 요소들을 모두 다루었음 : MPA와 같은 공간기반 관리도구; 해양 생물자원; 환경영향평가; 역량구축 및 개발된 국가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
-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15년간 공해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해양 협약 개발에 힘써왔으나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
- 계속되는 합의 실패의 주요인은 협약으로 인해 공해에서 조업 중인 선단들에 대한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
  - 러시아와 아이슬랜드는 향후 체결될 협약에서 수산업은 제외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음
- 뉴욕에 위치한 UN 본부에서 개최된 최근 협상 역시 공해상 해양 자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수익에 대한 규제 등 주요 사안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짐
-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퍼센트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는 UN의 목표에 따른 신규 해양보호구역을 기술하는 작업 역시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
- 환경정의재단(EJF)는 이번 협상 실패는 올해 UN 해양 컨퍼런스에서 국가 수장들이 보여준 해양 보호를 위한 약속과 국가들의 실제 정책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
  - EJF 창립자 Steve Trent는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202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해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하였음
- 세계 공해의 1 퍼센트만이 국제 조항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으며, 나머지 공해에서는 불법 어업과 인권 문제가 만연한 실정임

- 그린피스는 High Ambition Coalition의 50개 국가들과 미국, 캐나다 등의 욕심을 협상 실패의 주요인이라 비판함
- 본 협상을 개시한 UN 총회 결의는 협상이 2022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협상은 당분간 중단된 상태이며 국가들이 언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임

※ 출처: SeafoodSource <sup>1)</sup>  
chinadialogueocean.net <sup>2)</sup>

---

1) 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environment-sustainability/high-seas-management-treaty-negotiations-fail-again>

2) <https://chinadialogueocean.net/en/governance/un-talks-fail-to-finalise-high-seas-biodiversity-treaty/>

### □ 메인 주 랍스터 협회의 참고래 보호법 연기 소송 패소

- 미 법원에서 메인 주의 대서양 참고래 보호법 실행의 연기를 요청한 메인 주 어민들의 시도를 기각하였음
- 미 워싱턴 D.C. 지방법원 판사 James E. Boasbering는 지난 2022년 9월 8일 메인 주 랍스터 어민에게 적용되는 어구 및 조업수역 제한과 관련하여 미 수산청의 손을 들어주었음
  - Boasberg 판사는 “미 수산청은 참고래와 참고래 개체 수 계산을 위한 모델을 충분히 설명하였고, 동료 심사등을 위한 최고의 과학 데이터를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를 실행하였다”고 말하였음
- Boasberg 판사는 이전에 연방 고래 보호법이 해양포유류보호법과 멸종위기종보호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결하였으며,
  - 수산청은 새로운 조치 및 규제들이 멸종위기종들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 대답
- 현재 미국과 캐나다 대서양 수역에는 340종의 포유류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
- 메인 주 랍스터 어민들은 자신들의 어구의 위험성이 과도히 측정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고,
  - 메인 주 랍스터 협회는 지난 18년간 메인 주 랍스터 어업에서 고래가 그물에 얽히는 사건이 기록된 바가 없다고 주장함
- 동 협회는 새로운 규제는 랍스터 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성명에서 밝힘
  - 동 성명은 “법원과 수산청은 메인 주 랍스터 업계를 실망시켰다”고 말하며, “신규 규제에 의한 랍스터 업계의 피해와, 그로인한 연안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이 분명하다”라고 주장하였고,
  - 이번 법원의 판결로 수산청은 “최악의 시나리오”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지난 18년간의 어떠한 참고래에 대한 영향이 기록된 바 없는 어업에 대한

실질적 데이터를 무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고 말하며, 메인 주 랍스터 산업을 위기로 빠뜨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 비난함

- 한편 환경단체 Conservation Law Foundation은 본 결정에 대해 “참고래를 오랜 기간 사망시킨 엉킴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방해한 랍스터 업계의 시도를 물리쳤다”고 말하며
  - “수산청이 엉킴 사고를 50 퍼센트 줄일 수 있는 본 규제를 적용하는데 5년이나 걸렸다”며, “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90 퍼센트의 엉킴 경감이 필요하다”고 아쉬움을 토로하였음

※ 출처: SeafoodSource<sup>3)</sup>

---

3)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supply-trade/vietnam-raises-crab-exports-to-us-china>

□ 펜데믹 이후 급감하는 항구 요금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항구 노조 파업과 중국의 황금 주간에 따라 아시아-유럽 간 해상 운송이 크게 방해받을 것으로 전망됨

- 올해 중국과 유럽을 오고 가는 항공 및 해운 화물 운송비가 급감하였고 중국은 수출업자들을 위해 항구 비용을 인하하였음
  - 중국에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40ft 컨테이너의 비용은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펜데믹 정점 때 비용의 25%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특히 달러의 가치 상승 및 회사들이 대형 선박을 출시하면서 가격 하락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남
- 중국 정부는 중국 수산물 무역업자들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2022년 4분기에 상업용 트럭의 민간 고속도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대신 지불해줄 것이며 “정부-지명된” 화물 항구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것으로 발표하였음
  - 또한 중국은 “코로나 0” 정책으로 인해 많은 도시들이 폐쇄되면서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았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 대통령이 2022년 11월부터 국가의 코로나 규제를 완화 시킬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
- 한편, 유럽의 과잉 팽창된 공급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
  - 파업으로 인하여 항구는 일주일 넘게 폐쇄될 것
  - 최근 중국의 황금 주간에 앞서 두 차례의 태풍(Muifa와 Hinnamor)로 인해 항구는 폐쇄할 수밖에 없었음
- 게다가 중국의 황금 주間は 중국의 공휴일로 10월 1일부터 7일로 중국의 다수 공장과 중국의 항구들이 문을 닫을 것
- 역사적으로 아시아-유럽의 화물 활동이 제일 활발해지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추가됨에 따라 두 대륙간 무역에 어려움만 가중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- 별개로, 해운 화물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SC 지중해 운송 회사와 같은 기업들은 항공 화물 개발에 힘쓰고 있음

※ 출처: [www.seafoodsource.com](http://www.seafoodsource.com) <sup>4)</sup>

4) 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supply-trade/op-ed-uk-port-strikes-china-s-golden-week-set-to-disrupt-global-shipping>

- 러시아는 2월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전의 수산 전략을 재구상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지속되는 국제적 제재로 인하여 한계점이 클 것으로 전망됨
  - 러시아는 양식 사료, 선박 및 설비 디자인 회사 등을 포함한 다수 서양 회사들의이 러시아를 이탈하면서 러시아는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음
  - 새로운 전략은 EU, 미국과 영국 등의 제재 이후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임
    - 신규 수산 전략의 생산량 증가, 부가가치된 수산물의 질 향상 등에 집중하고 있음
    - 목표 자체는 이전의 목표와 동일하나 그 달성 방법에 변화를 추구함
    - 지속적으로 선박 및 수산물 가공의 최신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집중할 것임
    - 신규 계획을 위해 2030년까지 1600억 루블을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음

## 1. 양식업의 발전

- 러시아에게 양식업 산업은 늘 호황기였음
- 2021년 양식 생산량은 358,000MT로 2016년 대비 180퍼센트 증가한 추세임
- 하지만 이런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양식을 위한 영양분 생산량도 함께 증가해야하는 한편 2021년 고작 20,000MT밖에 생산하지 못하였음
  -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2022년 5월 연어 먹이를 생산할 수 있는 농장을 개발하였으나 구축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## 2. 선박 개발

- 러시아는 선박 용적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음
- 2016년 신규 어업 선박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하여 투자-쿼터 프로그램을 도입시켰음



-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2024년까지 약 105척의 신규 선박을 생산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현재 완성된 선박은 10척 미만임
- 특히 서양 국가들의 회사들이 러시아에 투자를 중단하면서 선박 건조를 위한 부품 및 장비를 수급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됨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 선박 개발은 러시아에게 우선시되는 과제임

### 3. 운송 시스템 개선

- 러시아는 대륙의 수산물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음
  - 하지만 이는 국가의 냉동 컨테이너 부족으로 실현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개선 사업을 완성 시키기 위하여 매년 1,500개의 신규 리퍼(reefer)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국제적 제재로 인하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
  -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620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짐

※ 출처: [www.seafoodsource.com](http://www.seafoodsource.com) <sup>5)</sup>

<sup>5)</sup><https://www.seafoodsource.com/news/supply-trade/russia-re-thinks-fishery-strategy-as-reality-sets-in>

- 9월 5-9일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된 제35차 FAO 수산위원회(COFI)에서 전재, 즉 선박 간 어류의 이전을 규율하는 새로운 자발적 지침이 승인되었음. 이는 세계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IUU 어업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것임.
- 금번 COFI에서 제시된 최종안은 회원국 기술협의회(6월)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, "지속가능한 어업을 지원하기 위해, 전재를 규율, 감시 및 통제하여, IUU 수산물의 시장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"고 FAO 수산양식국 Manuel Barange 국장은 말했음.
- 지침에서는 전재를 "위치에 관계 없이, 최종 목적지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이루어지는, 선박 간 어류를 바로 이전시키는 활동"으로 정의하고 있음.
- 전재는 항구, 연안국 해역, 공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. 전재는 운항비용을 줄이고 조업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, 전재가 적절하게 규율되지 않을 경우 불법 어획한 어류가 세탁되는 수단이 되어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, 지역 및 세계적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음.
- COFI는 이 자발적 지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FAO 사무국에 전재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였음. 연구 결과에서, 전재에 대한 규율, 감시 및 통제 부족은 IUU 수산물이 수산물 공급 체인에 진입할 위험을 높여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였음.

#### ■ 지침의 목표는 표준을 제공하는 것

- 전재에 관한 자발적 지침은 국가, 지역수산관리기구(RFMO) 및 기타 정부간 기구들에게 전재에 관한 정책 및 규정 개발을 위한 표준을 제공하고,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한 규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.
- 지침은 부문 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어업인, 어류 가공업자 등을 지원하고, 어업 감시와 자원회복, 생물다양성 보존 및 장기 지속가능성 구축에 기여할

수 있음.

- Barange 국장은 “이 지침은 IUU 근절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”라고 말했음.
- 지침은 국가와 RFMO들이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:
  - 전재에 관여하는 선박들이 관련 기국, 연안국 또는 항구국에 의해 허가되고, 선박들이 모든 유형의 전재를 수행하기 전 관련 당국에 통보하도록 보장.
  - 효과적인 감시, 감독, 통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, 허가 및 전재 데이터의 검증을 촉진하기 위한 투명한 보고 절차의 채택.
  - 전재에 관여하는 모든 선박이 어류의 양, 어종, 모든 혼획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는 신고서를 제공하도록 보장.
  - 선박 목록, 통보, 허가, 신고, 옵서버 및 검색 보고서, 위반 및 제재와 같은 전재 데이터를 공유.
  - 어종, 상품 유형, 어획 위치, 가공된 어류의 경우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차 확인하기 위한 보고 절차를 수립.
- 지침은 IUU 어업을 억제 및 근절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에 관한 협정(PSMA)과, 업데이트된 조업선, 운반선 및 공급선에 관한 글로벌 레코드(GR)를 지원할 것임.

출처: mercopress.com <sup>6)</sup>

---

<sup>6)</sup> <https://en.mercopress.com/2022/09/12/new-step-to-combat-iuu-fishing-fao-voluntary-guidelines-on-transshipments>  
(2022년 9월 12일 기사)